

히로시마 위령제 추모사

이 땅에 머무시는 영령들이시여!

타향살이도 고달팠는데, 시신도 찾을 길 없이 이역만리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그 슬픔은 얼마입니까. 조국 해방의 소식조차 접하지 못한 채, 광복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으니, 그 원통함은 또 얼마이겠습니까.

군인, 군속, 징용공, 동원학생, 호칭만 다를 뿐 우리의 조상이자 민족일진대, 불러주기만 기다리던 이름은 잊혀가고 구중을 떠돈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

지난 70년간, 그대들의 눈물로 바다가 채워지고 그대들의 한숨으로 구름은 흘렀건만, 산 자는 면목 없이 삶과 희생의 가치를 깊이 돌아보지도 못하고 반추할 겨를 없이, 망각의 세월을 건너 1970년에서야 이 비(碑) 하나 덩그러니 세웠습니다.

광복 70주년, 이전보다 나아간 것도 더 나아진 것도 없지만, 잊었던 그대들의 애통함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덧없이 흘러 보낸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산 자는 고개들 자신도 없지만 지금의 평화가 당시의 비극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여러분의 헌신으로 성립되었다는 자명한 역사의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.

이제 우리는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역사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류의 귀감으로 남기고 산 자는 산 자의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.

이 자리의 한국 불교 대표단 역시 속세의 썸에 치중하지 않고 역사의 엄정하고 올곧은 가르침에 따라,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정진 또 정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지켜가겠습니다.

잊지 않겠습니다, 기억하겠습니다!

영령이시여, 삼가 평온한 날까지 수행정진하겠습니다.

부디 편히 잠드소서!

불기2559년 9월 14일

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